

아름다움의 원천에 관한 신경미학적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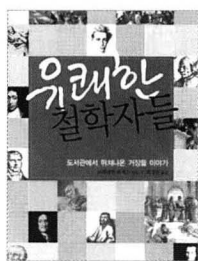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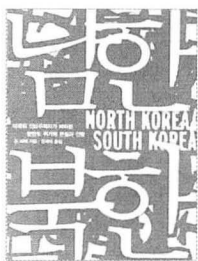
《노, 아름다움을 말하다》 선정기

적어도 이달엔 이 땅 누구나 애국자다. 간혹 도착된 사관과 독선 탓에 걸길로 빠진 이단아가 있긴 하나, '독도와 일본 교과서' 앞에서 너도나도 애국담론의 화자가 됐다. 하긴 내가 사는 땅과, 공동체적 삶의 울타리에 대한 애정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 굳이 관념이나 제도로 설명할 게 아니다. 다만 겉으로 표출된 '우리'의 형상은 물론이요, 그 겉과 속을 아우른 소프트웨어적 형질에 관한 알아야말로 그런 애정의 조건이다. 한 시대를 사는 의미를 알고, 작금 문화·문명의 실체를 깨달으며, '나'와 '나 아닌 것'들의 물리를 깨치는 것이야말로 애국의 완결편이다. 이달에도 어김없이 쏟아진 숱한 양서들은 그런 믿음을 실증하고도 남았다.

《출판저널》 기자들은 존 페퍼의 《남한 북한》, 김석철의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전중환 외 3인의 《인문지리학의 시선》, 김별아의 《미실》, 프레데릭 파제스의 《유쾌한 철학자들》, 지상현의 《뇌, 아름다움을 말하다》, 최기호 외 5인의 《인터넷 글쓰기의 달인》, 유경의 《마흔에서 아흔까지》, 박효남 외 9인의 《나는 무슨 씨앗일까》, 김진경의 《미래로부터의 반란》, 우석훈의 《아픈 아이들의 세대》, 공임순의 《식민지의 적자들》을 '이달의 책' 후보군으로 뽑았다.

이번에도 책 한권 한권에 대한 기자들의 '추천의 변'이 치열하게 맞물렸다. 때론 현장기자 감각을 동원한 '양서론'을 펴는가 하면, 나름의 과학적 성찰에서 나온 사변이 또 한 축을 이루기도 했다. 갑론을박 끝에 일단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와 《마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4월 후보도서



《남한 북한》 존 페퍼 지음 | 정세채 옮김 | 모색 | 298쪽 | 값 11,000원
북핵 문제에 얽힌 이해관계와 이면의 진실을 파헤친 책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인의 시각에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한편,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안정의 비결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김석철 지음 | 창비 | 400쪽 | 값 18,000원
책은 좁은 한반도에 머무른 공간적 사고로는 차세대 국제 질서와 지구적 삶에 대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은 물론, 황해를 가운데 둔 중국 연안까지 아우른 거시적인 공간적 설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문지리학의 시선》 전중환·서민철·장의선·박승규 지음 | 논형 | 464쪽 | 값 19,000원
지리학은 단순한 장소나 거리를 표현하는 '지도'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물과 사람들에 대한 인문적 관심과 이해, 그리고 해석이 그 충분조건이다. 고금을 통한 지리적 사상을 돌이키며, 촌락이나 도시, 자연경관과 인류적 삶의 관계를 추론하는 책이다.

《미실》 김별아 지음 | 문이당 | 348쪽 | 값 9,500원
신라의 경국지색 '미실'은 시중에서 어느덧 낯설지 않은 옛사람이다. 뛰어난 미모를 무기로 세 임금과 영웅호걸들을 녹여내며, 마침내는 권력을 틀어쥔 그녀를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여성'의 자아와 본질을 캐낸다.

《유쾌한 철학자들》 프레데릭 파제스 지음 | 최경란 옮김 | 열대림 | 272쪽 | 값 12,000원
철학을 개그 마냥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다. 본시 철학이란 딱딱하고 근엄한 게 아니라, 온갖 일상적 삶의 줄거리가 곧 철학임을 알게 한다. 모처럼 '철학'이란 것을 손쉽게 알고자 하면 반드시 읽어볼 만한 서물이다.

《인터넷 글쓰기의 달인》 최기호 외 5인 지음 | 세종서적 | 318쪽 | 값 11,000원
인터넷 글쓰기는 이젠 가장 막강한 소통과 전달의 도구다.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넘나드는 글쟁이 6인이 '막강한 글쓰기'를 위한 자세한 매뉴얼을 선보이고 있다. 글을 쓰는 기본적인 요령에서부터 고난도의 수사적 기법에 이르기까지 참고할 만한 책이다.

흔에서 아흔까지》, 《아픈 아이들의 세대》, 《뇌, 아름다움을 말하다》를 특별히 주목할 만한 책으로 골랐다.

황해도시연합.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도발적 논리를 압축한 용어다. 책은 《뇌, 아름다움을 말하다》와 함께 '이달의 책' 최종 후보에까지 오를 만큼 범상치 않은 텍스트를 담고 있다. 한반도 내외의 공간구조를 재편키 위해 국토를 4분지계로 나눠 설계하고, 중국과 세계와 극동, 한반도를 아우르는 유기적 공간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행정도시, 새만금, 국토불균형 등의 미분적 현안을 포괄하는 거시적 처방서에 다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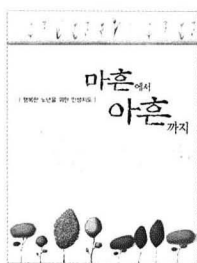
사회복지사 유경의 《마흔에서 아흔까지》는 '노년의 삶'이 결코 생의 주변부가 아님을 일깨우고 있다. 책에서 소개된, 노년을 앞두고 중년에 해야 할 10가지 일,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실천해야 할 100가지 등은 살다 늙으며 죽어가는 인간에 대한 구체적 사유의 또 다른 표현이다. 아직은 젊지만 노인복지 현장에서 체득한, '산다는 것'에 대한 저자의 원숙한 관조가 돋보인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며, 경외의 대상이란 초월적 깨달음도 인상적이다.

'서울 긴급 탈출'. 그러나 책 《아픈 아이들의 세대》의 메시지는 정작 서울로부터의 탈출을 권하는 데 있지 않다. '전국의 서울화'로부터의 엑소더스를 주문한다. 지은이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피엠텐(PM10)의 유해성을 경고하며, '서울은 이미 긴급 재난지역'임을 선포하고 있다. 농업과 농토를 잡아 먹으며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한국형 뉴딜'이야말로 한국사

회의 파국임을 경고하기도 한다. 대안은 하나. 책은 "스위스나 덴마크 모형과 같은 '생명'으로의 대전환만이 살길"임을 확신한다.

《뇌, 아름다움을 말하다》에서 지은이는 전혀 새로운 미학적 시도를 하고 있다. 스스로 표현했듯 인간과 사회를 보는 신경미학적 작동에 시선을 두었다. 곧 '아름답다'는 형용이 뇌세포의 정교한 작동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한다. 아름다움의 구성 원리인 형식미는 뇌의 또 다른 '언사'에 다름 아니라고 한다. '아름답고 보암직하다'는 감성 역시 뇌에 기반한 인류 보편의 감성과 신경구조에서 연유함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이론적 타당함을 가리기에 앞서, 미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사유의 틀이란 점에서 흥미롭고 놀랍다.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연역으로부터 《뇌, 아름다움을 말하다》의 탐구는 시작된다. <그리스도는 왜 오른쪽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가?>, <좌뇌와 우뇌가 보는 얼굴은 다르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세포>, <뉴런의 축삭, 샹갈의 청색> 등 역발상의 관찰로부터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한 원천적 해답을 구한다. 피카소와 고흐, 르누아르, 김홍도, 인상주의를 섭렵하며 '뇌가 말하는 아름다움'이 머금은 사연과 정체를 밝혀낸다. 미술심리학을 걸친 현대과학에 대한 지은이의 깊은 이해와 성찰도 백미다. 인간의 사유와 지적 경계, 그 끝간 데를 새삼 묻게 하는 대목이다. 《뇌, 아름다움을 말하다》는 그래서 '이달의 책'으로 뽑히기에 부족함 없는 책이다. **한글서체**



《마흔에서 아흔까지》 유경 지음 | 서해문집 | 304쪽 | 값 9,500원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한 자상한 지침서다. 중년과 노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각기 10가지와 100가지로 요약해 눈길을 끈다. 한편으론 의미 있는 삶과 죽음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체크리스트 같은 책이다.

《나는 무슨 씨앗일까?》 박효남 외 9인 | 샐터 | 162쪽 | 값 9,000원
호텔 주방장, 자연과학자, 시각장애 박사, 컴퓨터 도사, 화가 등. 각기 꿈을 이룬 10명의 비범한 '보통사람'들이 그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진솔한 얘기를 들려준다. 특히 어린이들이 점차 진로를 정하고, 꿈을 가꾸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미래로부터의 반란》 김진경 지음 | 푸른숲 | 264쪽 | 값 9,800원
교육만큼 솔한 처방과 진단이 난무하는 분야는 없을 듯. 그러나 교육운동가 김진경은 자신의 절실한 체험을 바탕으로 교육문제를 해부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큰 공명을 울리고 있다. 대입제도와 새로운 교육과정안 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 우석훈 지음 | 뿌리와이파리 | 256쪽 | 값 12,000원
10여 년 동안 환경문제에 골몰해 온 저자가 '공해 공화국'에 던지는 쓴소리다. 배기가스와 먼지, 곧 피엠텐(PM10)이 어린이와 도시인들에게 끼치는 치명적 해독을 날날이 고발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을 내세운 전 국토의 황폐화를 또한 근심하고 있다.

《식민지의 적자들》 공암순 지음 | 푸른역사 | 500쪽 | 값 19,500원
시대는 영웅을 어떻게 왜곡했는가. 저자는 소설, 드라마를 통해 역사바로잡기를 시도한다. 또다시 '부끄러움'의 역사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인식이 절실함도 주장한다.